

# 권율 도원수 3대첩

贈 領議政·永嘉府院君·忠莊公·晚翠堂

증 영의정 영가부원군 충장공 만취당

성균관成均館 전의典儀 겸 전례사典禮師 권정택 權貞澤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晚翠堂)이며 양촌계 문경공(文景公) 제(蹟)의 아들 연천공 마(摩)의 후손이다. 양근공 교(喬)의 증손이고 영의정 철(轍)의 다섯째 아들로 중종 32년, 1537년 정유에 출생하였다.

공은 원래 권문세가 출신이면서도 결코 그 귀세(貴勢)를 이용하여 자협(自挾)하는 일이 없고, 지극히 겸허하며 언행이 신중하였다. 공이 나이 40세에 이르도록 과거를 보지 않자 어떤 이가 음사(蔭仕)라도 하라고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46세 때인 선조 15년 1382년 이모에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가 되고 전적(典籍)을 거쳐 선조 20년 1587년 정해에 전라도 도사(都事), 이듬해에 예조 정랑·호조 정랑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1591년) 신묘 9월에 의주목사(義州牧使)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때 조정에서 낭료(郎僚)로 있던 공을 의주목사로 발탁하니, 파격적인 승진이라 하여 세론이 영예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임진년 봄에 북경에 간 역관(譯官)이 명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요동(妖童) 일대를 놀라게 하였다는 말이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하옥하여 국문하였는데, 공도 이들의 공사(供辭)에 관련되어 하옥되었다. 그해 즉(1592)년, 선조 25년 임진 4월에 왜란이 발발하자 왕이 이르기를,

“내가 들르니 권 율이 가용지재(可用之才)가 있었다는 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호남이나 영남의 거진(巨鎮)을 맡겨 그 재능을 시험해 보겠다.”

하고 즉시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제수하였다. 그때 공은 승정원에 당직하고 있던 사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을 찾아가 고하였다. 당시 나라에 오래 동안 평화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왜군의 내정소식이 전해지므로 조선(朝臣)과 한성의 백성

들은 호남이나 영남으로 가면 꼭 죽는 줄로만 생각할 만큼 정세가 매우 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항복은 장인인 공의 안위가 걱정되어 물었다.

“시국이 도도(滔滔)한데 왜 이리 급히 가십니까?”

“나라가 위급하니 지금이야말로 신자(臣子)로서 마땅히 죽을 때를 당할 것이다. 어찌 감히 주저하여 아녀자의 슬피 우는 모양을 험내 낼 것인가.”

공의 기색이 강개하고 태도가 충독(忠篤) 아니 주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15만 대군이었다. 그 일진이 4월 14일 부산에 상륙하자 그날로 부산진이 함락되었고, 이어 동래(東萊)도 무너졌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북상하고 있었다. 올라오는 왜군을 막기 위해 조정에서는 순변사(巡邊使) 이 일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立)을 급히 출정시켰으나, 이일(李鎭)은 4월 24일 상주(尚州)에서 패하고, 신립은 충주(忠州)에서 패사(敗死)하였다. 한편 광주목사로 부임한 공은 전라감사 이광(李光) 방어사(防禦使) 과영이 근왕병을 모집할 때 과영의 휘하에 들어가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선봉을 맡았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공이 문신(文臣)으로서 군대의 선봉이 된 것을 으아하게 여겼는데, 공은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나의 직분이다.”

이어 앞서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고 몽진(蒙塵)을 떠난 선조는 5월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때 전라좌수사(全羅左使) 이순신(李舜臣)이 이끄는 수군만이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뿐, 육지에서는 연패를 거듭, 5월 27일 임진강을 건너 왜군이 6월 1일에는 개성에서 또 북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전라·경상·충청 3도의 근왕병은 북상하여 6월 3일에 수원의 독산성에 다다랐다. 그러자 수원(水原)에 주둔하고 있던 적군은 수

만의 우리 대군이 육박하자 급히 달아나 용인(龍仁)에 있던 군대와 합세하였다. 전라감사 이광은 선봉장 백광원에게 적의 동태를 정탐케 하였다. 적은 현의 북쪽 문소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약세인 듯 하무로 백광원이 돌아와, “허술한 세력이니 시기 를 놓치지 말고 급히 쳐야 합니다.”하고 보고하였다. 이광이 군대를 출동시키려 하

있으니 지중(持重)하여 안전책을 도모할 것이며 작은 적과 칼날을 겨누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조강(祖江)을 건너 임진강을 막아야 합니다.”

“적이 안중에 들어왔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광은 공의 말을 듣지 않고 백광원에게 군사를 주어 보냈다. 묘시(卯時)부터 사

보내 일천여 명을 모으니, 전주로 돌아와 있던 전라감사 이광은 공을 임시로 도절제사(都節制使)로 삼아서 각고를 돌려하고 통솔하여 적의 절공을 막게 하였다.

7월 초순 적은 금산(金山)에서 웅치(雄峙)를 넘어 전주를 치려 하였다. 이에 공은 도복병장(都伏兵將) 나주판관(羅州判官) 이복남(李福南)·의병장 황박사(黃伯思)·김제군수(金堤郡守) 정담 등을 보냈으나 적을 막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적이 마침내 금산에 들렀다 오자 공은 군사를 진산에 진주시키고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 등과 함께 혼란한 곳에 응거하여 적을 기다렸다. 적세가 심히 강하므로 공은 전군에 명령하여 방어선을 굳게 했다. 공의 군사가 응거한 곳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과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분수령으로 호남에서 한성 또는 영남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금산을 점령한 적군은 곡창인 호남을 유린할 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당황한 군사들이 달아나려 하므로 이때 공이 칼을 뽑아 그중 하나를 베고 대호로서 엄명을 내렸다. 일제히 칼을 올리게 하고 질타하니 물러나는 자 없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적 흥색에 금빛 나는 갑옷을 입고 흑철(黑鐵) 투구를 쓴 공은 선두에서 채전 진력(責戰盡力)하며 장검으로 적을 무수히 베어고, 황진도 상처에 아랑곳없이 다시 나와 싸우니 아군의 사기는 다시 충전하여 일백 배의 기세였다. 이후 적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진산 쪽으로 후퇴하였다. 아군은 노도와 같이 일어나 적을 추격하였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시석이 벗발치는 가운데 적군은 군기까지 버리고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적이 물러간 이치령에는 피비린내가 가득 하였다. 계곡에서는 적의 장비와 시체가 더미를 이루었고, 냇물은 붉게 물들어 오래도록 빛없이 가시지 않았다. 이치령 전투의 승리는 대단히 큰 의의가 있었다. 이는 관군이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대승이었으며, 호남지방을 짓밟던 적군을 궤멸시켰기에 더욱 값진 것이기도 하였다. 공이 적은 군사로 적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공을 비롯한 모든 장병이 선두에 용전하였고, 유리한 위치에서 지형지물(地形地物)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전략 때문이었다. 공은 제단을 만들어 전몰한 장졸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동시에 정충신이 대첩의 회보를 의주 행재소에 보고하게 하였다. (은봉야사隱峰野史) 광주목사 권율은 이치에 진을 칠 새 제군이 패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호령하여, “각 군이 모두 패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만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도 도망하는 자가 있다면 영장 이하 모두 참수하리라”라고 하였다. 드디어 참모관인 전 만호 임대수와 더불어 금산으로 달렸다.

【光州牧使權懶陳梨時見諸軍退還今其軍曰各軍難罷吾軍不可動搖若有

一卒逃者領將以下皆斬遂與參謀官前萬戶林大壽馳逃錦山】

또 이치대첩비(梨峙大捷碑)에는 공의 본전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공이 칼을 뽑아 휘두르니 아군은 더욱 사기를 얻어 전진하였고 적의 손맛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칼날은 섬섬(閃閃)한 광채로 번쩍였다. 마치 일대 불덩어리를 치는 듯하고, 은 항아리가 깨지는 것 같았으며, 지반이 허공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적은 매우 놀라, “이는 진실로 신의 조화이다”하며 서로 다투어 도망하였다.

【公用劍自術銳丸慕入劍光閃閃便我一大火塊銀虹鐵亂地盤敗大駭日此神也各自襯腕】

(다음호에 계속)



자 중위장인 공이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

“서울이 멀지 않고 내적이 눈앞에 있는데 공은 크게 군사를 모아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데 나라의 존망이 한번 거사가

시(已時)까지 도전했으나 적은 덤벼들지 않았다. 아군이 오시(午時)에 이르러 치진 상태가 되자, 비로소 적이 아군 전령을 기습하여 사방으로 병기를 휘두르니 백광원 등 선봉 수령들이 여럿 죽고, 대군은 사기가 일시에 저하되었다. 이것이 6월 5일 일이었다. 이튿날 아군이 광교산에 진을 치고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적의 기병이 또 기습해 왔다. 앞장을 선 5명은 백발을 타고 있었는데 얼굴에 쇠로 만든 탈박근 해파를 쓰고 백기와 칼을 함께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를 막으려던 아군은 선봉 부대가 무너져자 수만의 아군이 한꺼번에 흩어졌는데 마치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이로써 서울탈환을 위해 북상했던 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빨빨이 흩어졌고, 공은 광주로 돌아와 밤에도 전복을 벗지 않은 채 지새우며 군사를 다시 모으기 시작하였다. 한편 선조는 다시 평양을 떠나 의주로 파천하였고 적군이 6월 13일 평양에 입성하니 조선의 중요 도읍인 한성과 개성 평양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간 꼴이었다. 이때 경상도와 충청도는 모두 적의 분탕(焚蕩)을 입었고, 전라도만 짓밟지 않은 상태였다. 공은 우선 고을 안에 장정 500명을 모으고 각 군현에 격문(檄文)을

로 먼저 진산 고을을 불질러 약탈하고 이치령(梨峙嶺)으로 휘두르니, 이치령 뒤로는 기암장폭(奇岩長瀑) 절벽이 대둔산(大屯山) 영봉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열두 계곡이 버티고 있었다. 공은 목족을 쌓아 진지를 구축한 다음, 여러 곳에 구덩이를 파고 거마·녹체·쇠 꼬챙이로 만든 인마 살상용 납과 쇠 마름새고 등을 묻어 두었다. 그리고 화살과 잘 구르는 수마석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었다. 영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개에 이윽고 적의 척후가 나타났다. 삼봉에 청룡백호기(靑龍白虎旗) 등 오색 가지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도 적군은 웅진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진격해 왔다. 왜군이 모두 계곡 안에 들어섰을 때 아군 전령에서는 새 날 날이 소리가 나오고 정 일밖에 개가 일제히 울렸다. 그와 동시에 화살이 비 오듯 날고 수마석이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공은 장고 위대기(魏大奇)·공시역 등과 더불어 군사를 돌려하여 적에게 사나운 공격을 펴부었다. 적은 화살에 맞아 죽고 바위에 깔려 죽고 우왕좌왕하다가 함정에 빠지거나 쇠 꼬챙이 남 가재에 찔려 순간에 일천여 명이 몰살을 당했다. 그러자 잠시 후퇴했던 적은 다시 정예군을 앞장세워 조총을 쏘아대며

## 4월 15일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 현황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추밀공파 양촌문충공계  
창수공족보를 만듭니다

창수공은 양촌 문충공의 4남 안숙공의 손자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에 산소가 계신  
광홍창수 휘 억憶을 계파조로 하는 1만5천 자손입니다

이번 족보는 한글판한자병기 전산보로서  
책자는 첨단출판체재로, 전산판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열람되는 영상보로 병행제작됩니다

수단[수록단자]의 마감은 2020년 4월 30일이고

수단비[등록비]는 창수공종회에서 지원하여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족보발간사무실: (우)08756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95 천우빌딩 503호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출구에서 150미터  
팩스겸용전화 02-885-7776 e-mail kwon8857776@naver.com  
간사 권병관 010-8869-2867 종보사 02)723-4480

안동권씨 창수공종회장 권병돈

오는 4월 15일 실시 예정인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에 출마 예비후보자는 8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시군의장선거 2명, 시도의회의원선거 3명, 구시군의회의원선거 3명이다. 정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명, 미래통합당 5명이다.

안동시 제2선구권 광택 예비후보는 안동시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출마한다.

지역별로는 부산 1명, 경기 안성 1명, 광주 1명, 대구 2명, 안동 2명, 전남 여수 1

명이다. 특히 대구 동구 제3선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오준 예비후보와 미래통

합당 권기훈 예비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출마예비후보자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 확정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구시군의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부산중구	경기 안성시	대구동구 제3선구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권혁관	권혁진	권오준

구시군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선거
평택시 나선구	여수시 나선구	여수시 나선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권현미	권석환	권기원